설교 2 설명:

“복음을 믿었다면, 이제는 똑같이 살 수 없다”

1. 출발점: 복음이 만든 ‘정체성의 변화’
   - 첫째 날 저녁에 복음을 들었고,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체성이 바뀐다.
   -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아래 있었지만,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
     하나님의 자녀 / 예수님의 제자 /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.
   - 따라서 새 정체성에 맞게 생각, 말, 행동, 태도,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(두 번째 설교의 핵심).

2. 변화는 ‘자동’이 아니라 ‘새 신분에 합당한 삶의 훈련’
   - “생각이 바뀌고, 언어가 바뀌었다”는 노래 가사처럼, 믿음에는 변화가 따라야 한다.
   - 그러나 변화는 프로그램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, 내 신분이 바뀌었기에 마땅히 따라야 할 변화가 있다는 방향으로 설명한다.
   - 예시: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 규범(code of conduct)이 따르듯, 하나님 백성에게도 기대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.

3. 시편 1 편: 세상 방식과 결별하고 말씀에 붙어 사는 삶
   -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,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.
   - 문제는 세상이 여전히 악인·죄인·오만한 자로 가득하다는 것(학교·직장·사회 모두).
   -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분위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,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.
   - 또한 “묵상”은 단순한 조용한 QT 가 아니라 ‘읊조리다’(말씀이 입에 붙어 있는 상태)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.

   좋은 때도, 힘든 때도 말씀이 떠오르도록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을 격려한다.

4. 주기도문: '하늘의 현실'이 '땅에서도' 이루어지게 하는 제자의 사명
   - 주기도문 앞부분의 "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"는,
     하나님의 이름(영광),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뜻(권세)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핵심 구조.
   - 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 선언문처럼,
     "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살아가겠다"는 고백이 된다.
   - 주기도문 마지막(나라와 권세와 영광)도 같은 주제를 반복하며 강조한다.
   - 결론: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/에이전트로 부름 받았다.

5. 누가복음 6 장: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다
   - 누가복음의 '네 가지 복'과 '네 가지 화'는, 세상이 칭찬하는 기준(부요함, 배부름, 웃음, 인기)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름을 보여준다.
   - 따라서 제자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
     가난한 자·배고픈 자를 섬기고, 우는 자를 위로하며, 약자의 편에 서는 삶을 추구한다.

6. 마무리: 어렵지만 결단과 인내로 살아가는 제자
   - 이런 삶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여전히 죄와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.
   -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에, 세상과 방식이 달라도 결단과 인내로 제자의 길을 걷는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설교를 마친다.

설교 2 조별 모임 질문 구성

1. **아이스브레이킹(삶에 적용 시작)**
   - 삭개오처럼 "예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다면,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?"를 통해 마음을 열고 시작한다.
2. **내 변화(자기 점검)**

-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, 내가 **가장 변화되길 바라는 나의 모습**은 무엇인지 나눈다.

3. **하나님의 관점(정체성/부르심)**
   - 가능하다면 "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?"를 생각해 보며, 내 기준이 아니라 **하나님의 시선**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.
4. **말씀과 가까워지는 구체적 실천**
   - 이번 주에 "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"를 정하고 나눈다. (의도적으로 '푸쉬??'해서 결단/실천을 돕자는 취지)
5. **이웃 사랑의 실천**
   - 내가 작고 미숙해도,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**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**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눈다.
6. **동기 점검(왜 하는가)**
   - 마지막으로, "이런 일들을 왜 하는가?"를 다시 묻고 정리하며, 실천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**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유/동기**에서 나옴을 기억하도록 돕는다.

[설교 2 에 대한 교사-목사님 Q&A]

Q1) 죄를 "행동"으로만 설명할까요, "하나님과 분리된 상태"로 설명할까요?

아이들 입장에서 죄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: "너 잘못한 것 있지 않니?" 같은 행동 중심 접근.
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"우리는 죄인이다"라는 말은 단지 어떤 큰 범죄(살인 등)를 저질러서만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, **우리 존재 안에 죄성이 있다**는 문제를 포함.
"모든 사람이 죄인"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죄의 'DNA'가 깊이 박혀 있다는 뜻 ➔ 구원이 필요한 이유.
"하나님과 분리된 상태"를 죄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,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자면, 그것은 **죄의 결과**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음.
특히 "**사망**"의 가장 큰 특징: 단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, **하나님과 분리됨**(단절)입니다. 지옥의 무서운 이미지도 있지만,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기다리고

있다는 점입니다.
그래서 “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”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.
“무엇을 잘못했니?”라고만 접근하면? 겉으로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: “나는 큰 잘못 없는데?”라고 느낄 수 있음. 그래서 죄의 본질을 말하려면, **마음의 문제**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.
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려 하고,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자체가 죄성의 모습. 타락 이후 인간은 죄를 짓도록 기울어진 존재가 되었고, 그게 근본 문제.
하나님의 기준→ 결국 **마음**을 겨냥.

-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,
- 탐심이 우상숭배,
-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마음의 간음…

모두 “마음의 죄”를 보여줌. 아이들에게는 “너도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있지?”, “너도 미워하고 싶을 때 있지?”처럼 **마음의 현실**을 통해 접근 →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,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.

Q2)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, 왜 이렇게 죄성이 강한가요?

이 질문은 결국 **인간의 타락**(fall)으로 연결. -> **설교 한 편을 따로 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.**
설교에서는 가능한 **현상(우리가 죄성을 가진 현실)** 중심으로 주로 설명 -> 그러나 아이들이 궁금해한다면 **설명 필요**.

죄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**타락**, 곧 인간이 하나님께 **불순종**했기 때문. 이것은 단순히 “한 번 잘못했다”로 끝난 것 아니라 ->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에 **깊은 영향** -> 그 결과 타락한 상태가 인간 모두에게 **한계처럼 남게 됨**.

“하나님의 형상”이 타락으로 인해 **망가졌다**는 표현이 더 적절.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, 죄의 결과로 그 형상이 **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**.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: **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** ➔ 결국 복음과 연결.

Q3) 그렇다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? 아니면 일부 남아 있나요?

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
하지만 그 형상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

-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,
-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나,
-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

“전적인 타락”이라는 말의 핵심은 구원에 대해 인간이 무능하다는 뜻입니다. 즉,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도 죄로 인해 오염되고 손상되어,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.

예로 들면, 행주에 심하게 오염이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되듯이, 오염은 “그냥 조금 더러워진 정도”가 아니라 실제로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로, 남아 있지만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형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
Q4) 그렇다면 “죄성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서 드러나고”, 우리는 ‘깨진 거울’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지만 많이 깨져 있으며, 그 거울을 회복하려면 **예수님의 사랑과 구원**이 필요하다고 말하고, 또한 시편 1 편처럼 말씀에 가까이하도록 이끌면 될까요?

정리가 매우 좋습니다. “많이 깨진 거울” 같은 비유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.
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것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다만 마음과 생각만 강조하다 보면 실천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, 원칙적으로는 마음-말-행동-삶의 방식 전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. 결국 회복된 사람은 “빛을 반사하는 거울”처럼 말과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.

함께 기도 (두번째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한 내용):

1) 하나님께 시선 고정, 말씀과 뜻에 순종
   -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,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도록
   - 수련회가 말씀에 잠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.
2) 복음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
   - 십자가 복음이 학생들의 마음을 울리고 설득하여, 복음이 구체적으로 자리잡도록
   - “하나님의 사랑”과 “죄와 구원”이 지식이 아니라 위로·감사·기쁨으로 경험되게.
3) 학생들의 회심과 변화된 삶(정체성에 합당한 삶)
   -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, 말씀을 통해 거듭나며, 변화된 삶을 살게
   -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, ‘새 정체성’에 맞는 삶을 살도록

4) 약한 자를 품는 하나님 나라의 삶
   - 도움 필요한 사람을 품고 섬기며,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으로 이어지게
   - 교사들도 행동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.
5) 교사들의 영적 준비: 성령 충만, 복음의 감격, 주님의 마음
   - 교사들이 먼저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
   - 교사들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,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가게
6) 연합과 하나 됨
   - 여러 교회/지역이 함께하는 수련회인 만큼, 한 마음, 한 성령으로 연합하도록.
   -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.
7)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
   - 준비 과정과 수련회 전체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과 인도가 있게
   - "결과"보다 본질(하나님 중심, 참 섬김, 사랑, 하나 됨)에 충실하게
8) 건강, 새 힘, 안전(이동 포함)
   - 교사/봉사자/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,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며 서로 격려하게
   - 오고 가는 길 포함 모든 과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길
9) 수련회가 '행사'가 아니라 '예배와 만남'이 되도록
   - 단순히 놀고먹는 시간이 아니라, 하나님만을 높이는 순전한 예배의 자리,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
   -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, 인간의 노력/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